

“인간중심의 AI, 삼성 비전과 통해... 건강·웰니스 연구 중요”

삼성AI포럼 2020

인간중심 AI 과제, 연구방향 제시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등 논의
승현준 “인간 중심 연구” 강조

삼성전자가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을 논의했다.

삼성리서치가 주관하는 ‘삼성AI포럼 2020’ 2일차 행사가 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삼성리서치 승현준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둘째 날 포럼 주제인 ‘인간 중심의 AI’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자는 삼성전자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다”며 “연구 자유도가 높은 학문적 연구와 달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업들의 연구에는 극복해야 할 제약이 많다. 이러한 제약이 기업의 창의적 문



삼성리서치 승현준 소장.

/삼성전자

제 해결과 혁신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승 소장은 AI 기술을 적용한 삼성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통해 삼성전자와 AI 연구자들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 도전과 연구방향도 제시했다. 비전과 그 래픽, 음성과 언어, 로보틱스 등 전통적

인 AI 분야는 물론, 온 디바이스 AI 분야와 AI를 통해 삶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과 웰니스(Health & Wellness) 분야를 주요 연구 분야로 꼽았다.

각 분야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연구 현황, 글로벌 대학·기업과의 협력 성과와 과

트너십도 함께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승 소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AI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이날 행사에는 ▲자연어 처리 ▲비전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로보틱스 등 세션이 진행됐다.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온라인을 통해 기조 강연을 펼쳤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는 자연어 처리와 관련해 설명했다. 구어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IT 기기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양한 부문에서 자연어를 학습시키고 실생활에 응용한 경험을 소개했다.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데이비드 파릭 교수는 비전, 시각과 관련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보여줬다. 강연을

끝낸 후 두 교수는 서로에 심도 있는 질문을 주고 받기도 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수바오 캄팜파티 교수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AI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지 연구 성과를 밝혔다.

삼성리서치 뉴욕 AI센터장 다니엘리 부사장은 로보틱스 강연을 맡았다. 자연어와 인공지능 차이를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방법과 함께, 물리 세계를 인식시켜 로봇에 적용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승 소장과 기조강연자들은 온라인으로 모여 서로 다양한 질문을 주고 받으며 AI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 과제를 설정했다. AI 발전 속도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만큼 빨라졌으며, 스마트폰이 AI를 현실에서 구현할 중요한 디바이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롯데온, AI 디자이너가 만든 옷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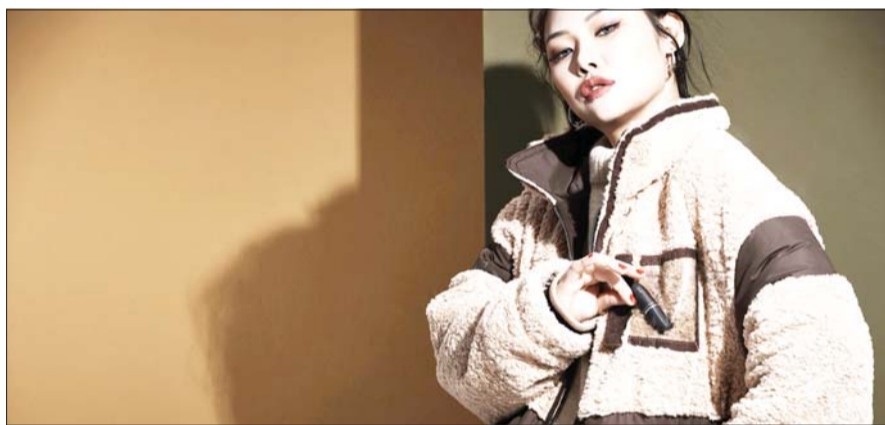
프로젝트 브랜드 데몬즈 론칭
1초에 1만여 개 상품 디자인
구스다운, 맨투맨 등 8종 선보

롯데온(ON)이 AI와 손을 잡고 신규 브랜드를 선보인다.

롯데온은 3일 신규 프로젝트 브랜드 ‘de MonZ(이하 데몬즈)’를 론칭한다. 데몬즈는 AI를 활용해 의류를 기획 및 제작, 유통하는 브랜드로 롯데온은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패션 유통 방식을 실험한다. 데몬즈는 ‘MZ세대 사이에서 디자인에 새로운 감성을 입힌다(M+ON+Z)’의 의미를 담고 있다

롯데온은 데몬즈 론칭을 위해 AI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힘을 합쳤다.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AI 활용 디자인 전문 스타트업인 ‘디자인노블’이 맡았으며, 생산은 스타트업 ‘콤포마’, 유통은 ‘롯데온’이 책임진다.

특히, 디자인노블이 개발한 AI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의류 상품의 패턴과 색상, 소재 등을 분석해 상품 트렌드로 정리한 후 매 시즌 컬렉션, 룩북 등 수백 만 자료를 참고해 스스로 반복 스케치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AI는 1초에 1만 개까지 상품 디자인이 가능



데몬즈 X 치타 플리스 다운.

/롯데쇼핑

한 능력을 갖는다. 디자인노블 자체 조사 결과, 72시간 학습한 AI의 판매 예측 정확률은 10년차 상품기획자(MD)에 비해 약 20%p 높은 7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온은 데몬즈의 첫 뮤즈(muse)로 힙합 아티스트 치타를 선정해 ‘데몬즈 X 치타’ 상품을 선보인다. 첫 협업 셀러브리티로 치타를 선정하는 이유는 방송을 통해 보여준 당당함, 패션과 예술에 대한 감각 등이 데몬즈가 추구하는 브랜드 감성과 일치해서다. AI는 치타가 가진 삶의 가치관을 상품 디자인에 담는 작업을 했다. 치타는 반려묘, 환경, 변화된 자신의 모습 등 직접 고른 이미지를 AI에게 전

달했고, AI는 이미지와 스스로 뽑아낸 데이터를 합쳐 치타의 철학이 담긴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롯데온은 이를 바탕으로 구스다운, 플리스다운, 후드 및 맨투맨 티셔츠 등 8종의 상품을 오는 17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오는 6일까지는 데몬즈 론칭을 기념해 전 상품을 15% 할인 판매해 플리스다운을 24만 7950원에, 후드 집업을 11만 8850원에, 아노락 자켓을 18만 1260원에 선보인다. 또한 6일에는 롯데온의 라이브 방송에 치타가 직접 출연해 본인의 가치관이 담긴 디자인과 상품 기획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고객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LGU+, 레이다 센서로 실시간 낙상 감지

내년 상용화 목표 서비스 실증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레이다(Radar) 센서 기반의 실시간 낙상감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내년 부터 상용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이는 낙상감지 서비스는 벽이나 천장에 설치된 레이다 센서를 통해 지정된 공간 내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낙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선통신으로 보호자에게 알림을 즉시 전송한다. 이에 원격에서 24시간 낙상사고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LG유플러스의 낙상감지 서비스는 비접촉 방식의 레이다 센서를 활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접촉식 센서 기반의 낙상감지 서비스와 비교해 편의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사용중인 고령층은 디바이스 착용 또는 접촉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디바이스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레이다 센서 기반 실시간 낙상감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낙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5세 이상 노인이 7만 2000여명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상용화에 앞서 낙상감지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말까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H+(에이치플러스)오양병원과 서비스의 실증을 진행하고, 내년 본격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25일 개최

‘데뷰 2020’ 10일부터 참가 접수

국내외 개발자 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네이버의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2020’이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데뷰는 최신 기술 트렌드뿐 아니라 개발자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

는 컨퍼런스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한 이번 데뷰 2020은 ▲웹 ▲모바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머신러닝/AI ▲검색 ▲컴퓨터비전 ▲로보틱스 등 총 81개 세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데뷰 2020에서는 언택트 시대 중소상공인(SME)·창업자와 사용자간의 ‘연결’을 지탱하는 다양한 기술과 네이버의 미래 기술에 녹아든 다양한 경험들이 중점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데뷰 2020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TV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채팅창을 통해 연사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원 제한 없이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실습 위주의 발표로 구성된 ‘핸즈온 세션’과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표로 구성된 ‘주니어 세션’이 신설돼 더욱 실용적이고 의미있는 기술과 경험들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뷰 2020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엔젤투자협회 온라인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야나두 등 100여 곳 참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20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이 오는 13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13일에는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가 주최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익스플래닛이 공동으로 주관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행사에는 야나두, 스파크플러스, 중고나라, 스폰라디오 등 스타트업 100여 개사가 참가한다.

구직자는 홈페이지와 연동된 채용 전용 앱을 통해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개

별 접수 및 구직 상담을 할 수 있다. 화상 면접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채용부스 운영(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주제강연 및 패널토크(스타트업 성장 스토리,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 등) ▲기업설명회 ▲참여 이벤트(화상 면접, 직업심리검사, 자소서컨설팅 등) ▲포토존 및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 개막 및 무대 행사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한편 ‘2020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